



국내 민영보험사의 현상검사 수임

- 선박보험가입에 따른 이중검사불편 해소 -

공단(이사장 김성규)은 지난 6월 30일 코리안리재보험(주)와 삼성화재보험사 등 국내 10개 민영 보험사로부터 선박보험가입시 선박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현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공단이 이번에 현상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종전 해외조업어선이 정부검사와는 별도로 국내보험사에 부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현상검사를 공단이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동안 정부 검사와 현상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는 이중검사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현상검사(Condition survey)란?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는 양호한 상태로써 보험인수에 무리가 없다.”는 기술적 판단 행위로서 비입급 선박이 국내 보험사에 부보하고자 할 경우 보험사가 요구하는 선체, 기관, 항해용구, 무선설비, 구명 및 소방설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감정평가를 말한다.

2중 스테인리스강축 방식시스템 특허권 기술실시계약 체결

지난 6월 27일 선박의 추진축 중 ‘2중 스테인리스강축 방식시스템’에 대한 특허기술실시계약을 (주)DHE(대표이사 허 규)와 체결하였다.

공단이 이번 기술실시계약을 통하여 2006년 11월 공단 설립이후 최초로 발명특허를 획득한 2중 스테인리스강축 방식시스템을 실용화함으로써 2중 스테인리스강축의 부식에 의한 해양사고를 방지함은 물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주)DHE는 특허관련 연구에 참여한 업체로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축계방식시스템을 제공함과 동시에 저급의 유사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